

2019

Interserve Korea Annual Report

2020.03.20



목차

- 03 인터서브 비전, 목적, 가치
- 04 이사장, 대표 인사
- 06 National Office는 무엇을 하나?
- 07 01. 열방으로 나아감
 - 1. 계속 이어진 파트너 허입
 - 2. 사람 중심의 인력 정책
 - 파트너 스토리 1: 윤페니 파트너
- 11 02. 선교지로서의 한국
 - 1. 한국 교회와 함께
 - 2. 한국 사회를 새롭게
 - 파트너 스토리2: 이대영, 서현정 파트너
- 16 03. 공동체의 성장
 - 1. 프렌즈들의 성장, 파트너들의 참여
 - 프렌즈 스토리: 김령 전문위원
 - 2. 총체적 멤버케어
 - 3.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 함께 섬기는 문화
- 21 04. 미래를 향한 준비 - 장기전략 사역
 - 1. 청년 선교 자원을 텐트메이커로 보내다!
 - 2. BAM 에코시스템 구축
- 23 05. 본부 운영
 - 1. 본부 팀 운영
 - 2. 재정 운영 하이라이트
- 27 06. 올 한 해의 평가, 내년도의 연례 목표

1. 인터서브란? Interse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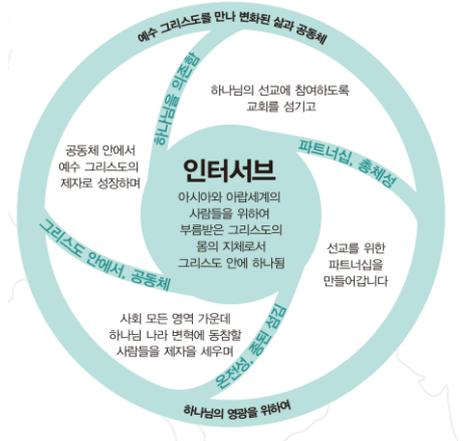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시아와 아랍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2. 비전 Vision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Lives and Communities Transformed through Encounter with Jesus Christ.

3. 목적 선언문 Purpose Statement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Our purpose is to make Jesus Christ know through wholistic ministry, in partnership with the global church, amongst the neediest peoples of Asia and the Arab world.”



4. 핵심가치 Core Values

하나님을 의존함 Dependence on God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또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공동체 Community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관계에 깊이 헌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태도와 행동에서 관대하고 유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Oneness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 민족, 사회 신분, 문화와 영적전통들의 다름에 근거한 모든 편견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기뻐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사역과 리더십 역할에서 함께 일합니다.

파트너십 Partnership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상호의존성 가운데 사역합니다. 우리는 참여적이고 지역 리더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온전성 Integrity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위로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일에서, 관계성과 영성에서 일관되고 진실하고 정직할 것입니다.

총체적 Wholistic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화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삼은 것을 추구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예배, 선포, 섬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성품과 일을 증거할 것입니다.

중 된 섬김 Servanthood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랑과 겸손 안에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역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갈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김민철 이사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인터서브 온 가족들의 평강을 빕니다!

지난 2019년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오신 사랑하는 인터서브 파트너들과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넉넉한 열매의 은혜로 즐거워하신 분도 계시고 바닥을 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가난한 심령에 쉼과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여정에는 늘 자기 정체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견지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기반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열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방법과 태도로 이룬 것이라면 제대로 된 미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모습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빌립보서 1:9-11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우리의 선교적 삶에서 동기와 방법과 태도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점검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love}을 지식^{knowledge}과 모든 총명^{depth of insight}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best}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pure & blameless} 그리스도의 날까지^{for the day of Christ}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through Jesus Christ} 의의 열매^{fruit of righteous}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Glory & praise of God}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여 더 풍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진실하고 허물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인터서브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터서브 파트너들과 모든 동역자님들 앞에 주어진 2020년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에 감사, 내일의 울림

조샘 대표

인터서브 파트너, 프렌즈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적 실천과 인터서브를 향한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임기가 올해 마무리됩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지난 4년 인터서브 식구들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본부 재정이 크게 마이너스였던 것을 4년이 지난 지금 안정적인 재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부의 팀워크가 커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연례보고서는 거의 제가 혼자 작성했습니다. 올 처음으로 각 부서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그만큼 자발적인 팀워크와 시스템이 본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허입 숫자도 작년에 가장 높았고 2020년에도 우수하고 준비된 후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교회들을 돕는 Life As Mission School(LAMS)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다문화 사역팀들은 이제 각자 재정을 공급하며 스스로 팀과 사역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사역들도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며 가시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016년 제가 대표로서 시작할 때 함께 세웠던 4년의 목표는 “인터서브 공동체성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에는 본부 행정의 팀워크 빌딩을, 2018년에는 인터서브 코리아의 거버넌스와 파트너 정책회의의 시작과 패밀리캠프의 강화를 시도함으로 공동체 내에 참여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파트너와 본부의 재정적 건강성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왔습니다.

2018년 총회 결정에서 한가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소통합니다. 당시 사단법인으로 인터서브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의논하였으나, 준비 미비와 사단법인 등록과 관련한 법제 등의 변화로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모인 중앙이사회에서 의논하여 그 때의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파트너들의 재정적 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성장하고는 있으나, 파트너 한 유닛 당 후원액은 매달 23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아이들 대학 교육금이나, 급한 의료비, 은퇴 자금 등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선교 사역의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파트너들의 재정을 돕고 장기적인 기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침, 본부의 재정운영이 4년 만에 안정선으로 들어선 느낌이라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인터서브 공동체성의 성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3년간의 변화는 기초 골조 정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채울 자발적인 도움과 섬김은 아직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렌즈들과 파트너들의 연결되는 포인트, 현장 필드팀에서 다른 파트너들을 돌봄, 재정적 공유 면에서는 모두 진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7월에 있을 30주년 기념행사를 이 방향성에서 잘 마치도록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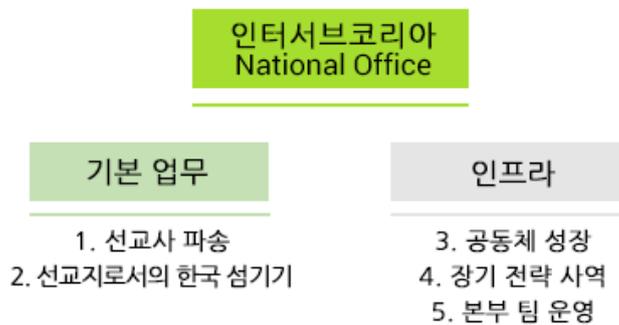
셋째, 이 모든 변화들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인터서브 공동체의 비전은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삶과 공동체와 지역사회”입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저희들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동북아의 긴장과 남북의 대립은, 상생과 평화와 통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의 경험이 어찌면 이런 변화가 요구하는 복음증거와 선교의 총체성과 맞지 않을까요?

지난 4년 인터서브 코리아를 복주시고 이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미래로의 이 세가지 방향성을 친히 이끄시고 열매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편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지난 4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이 생기시나요? 미래를 향해 제시한 세가지 방향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신가요?

함께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도 늘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또다시 드러나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National Office는 무엇을 하나?

인터서브는 목적과 가치에 동의하는 국가 사무실National Office과 필드팀 Country Team으로 구성된 국제 연합체입니다. 인터서브 코리아는 이 글로벌 공동체의 일부로서, 새로운 선교사(파트너)를 리쿠르팅, 선발, 훈련, 배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한국 내의 다양한 민족들과 교회를 섬기는 필드팀의 역할도 합니다. 이 두가지 방향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업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두개는 인터서브코리아가 하는 글로벌 인터서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본적 기능으로 열방으로 파트너를 파송하고 돌보며, 동시에 선교지로서의 한국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가지 업무는 이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고, 장기적인 준비를 하며,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터서브코리아가 앞의 기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의 시작에 저희들이 세웠던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가시적 연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목표의 성취에 대한 리뷰는 이 연례보고서의 마지막에 내년도 회기 연례 목표 설정과 함께 설명할 것입니다.

- **공동체성의 구조 새롭게 하기:**

파트너들과 프렌즈들의 참여증가; 함께 기도하는 문화와 프로세스; 법인 구조의 변화

- **인터서빙Inter-Serving! 서로 섬기는 재정 문화:**

통합 홍보물 완성; 프렌즈 통합시스템 구축; 인터서빙 재정돕기; 본부후원 10% 늘리기

- **제자로 자라나도록 돕기:**

인력 통합시스템 1.0 구축; 해외 영어/ 다문화 센터 구축; 프렌즈 교육 커리큘럼 개발

이제,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터서브코리아의 일들을 위의 다섯가지 분야에서 리뷰해봅니다.

01

열방으로 나아감

1. 계속 이어진 선교사(파트너) 허입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파트너 후보생들의 문의와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총 32유닛, 60명으로부터 장기 및 단기 파트너 지원 문의를 받았으며 관심자들의 문의 응대,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만남, 심사 과정 등을 거쳐서 신입 파트너를 허입하고, 훈련하고, 현지에 파송하는 사역이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6월과 2019년 12월 정기 허입 심사를 통해 총 9 유닛, 17명(8가정, 싱글 한 명)의 장기 파트너 허입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 유닛은 필드에 배치 되었습니다. 이 허입 숫자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4년간 신입 파트너 허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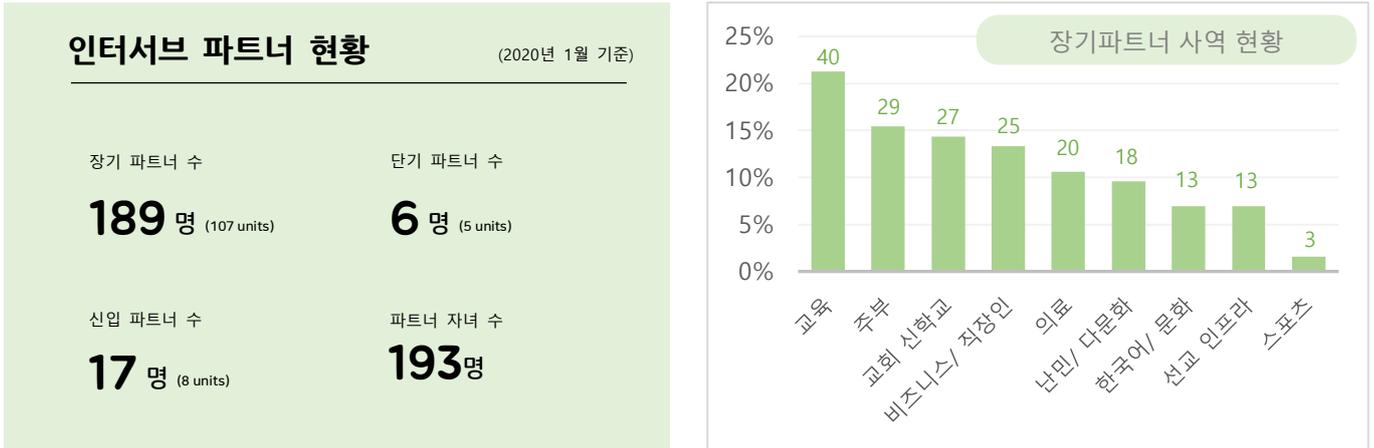


파트너의 파송 후보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동, 인도, 중국, 일본 등으로 다양하고, 초임 파트너와 현지 선교 경력이 있는 경력 파트너의 비율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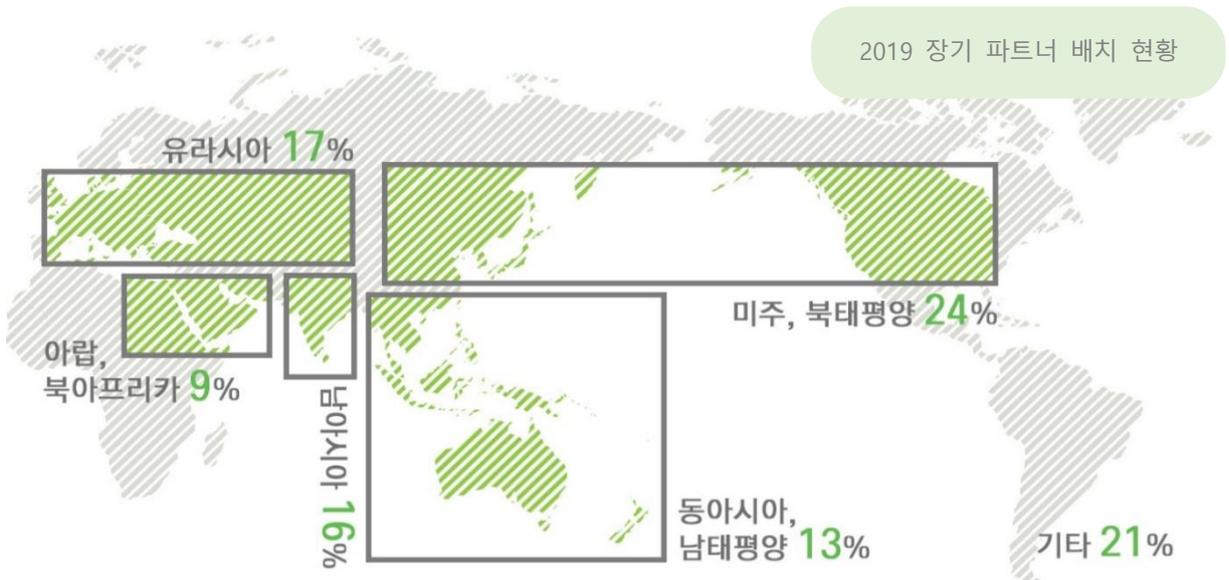
2019년에는 인터서브 새로운 파송지로 일본이 추가되었으며, 새로 허입된 한 유닛은 2020년 상반기로부터 약 1년간의 훈련을 거쳐 일본에 파송되는 인터서브 첫 파트너가 될 예정입니다.

중단기 선교 온트래커는 2019년에 총 1 유닛이 미얀마에서 1년의 사역을 마쳤고, 2020년 1월 말 현재 총 5유닛, 6명이 레바논, 캄보디아, 미얀마, 터키에서 의료 행정 사역과 영어 교육, 공동체 사역, 문화원 사역, 상담 사역, 텐트 메이커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허입 문의는 2019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6 유닛, 11명이 2020년 상반기 허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1월 말 현재 인터서브 파트너는 총 107유닛, 189명입니다. 2020년 말까지는 110 유닛, 200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파트너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역 면에서는 교육과 가정에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주부(디아코니아) 사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가 섬기는 지역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파트너들이 배치된 곳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몰려있는 미주-북태평양 지역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에서 파트너들이 떠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다문화 사역하는 파트너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왔습니다.



2. 사람 중심의 인력 정책

1) 코호트 프로그램과 씨름 교육

2019년부터는 새롭게 허입된 파트너들을 위해서는 새로이 코호트^{Cohort}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지에 파송되기 전까지 훈련, 교회 관계, 재정, 후원 등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파트너가 함께 온-오프 라인으로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각각 다섯 유닛으로 구성된 두개의 코호트 그룹이 모이고 있으며 실제적인 준비와 공동체와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년 동안 신입파트너들의 훈련을 강화해왔습니다. 특별히 필드에 배치되기 전, 영어훈련과 다문화 훈련을 함께 하는 씨름 SERIM 프로그램을 M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영성^{Spirituality}, 영어^{English}, 안식^{Rest}, 인터서브 공동체성^{Interserve community}, 다문화 능력^{Multicultural competency}의 다섯가지 분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다섯가지 분야의 알파벳 첫자를 딴 씨름은 히브리어로는 “찬양”이라는 뜻도 되고, 영어로는 액기스라는 뜻도 됩니다. 현재 세 유닛이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더 배치되어 훈련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2) 커리어 중심 리쿠르팅 Career-focused recruiting

선발 면에서는 2020년부터 인력 정책의 중심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터서브는 선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해왔고, 신입 선교사 훈련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파트너 및 후보자들에 대한 DB가 온라인으로 구축되고, 선발도 다각적인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문의부터 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리쿠르팅 부분에서는 리더십의 외부활동과 SNS를 통한 이미지 리쿠르팅 정도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선발 전단계인 리쿠르팅에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지역 중심, 이미지 접근의 리쿠르팅에서 후보자들의 경력과 재능과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과 재능을 매칭하는 형태의 리쿠르팅으로 옮겨가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경력과 개인의 필요를 중시하는 현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는 필드의 세밀한 필요를 채운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윤페니 파트너

저는 2014년 5월말 미얀마에 입국하여 6년째 양곤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페니 선교사입니다. 황금의 나라 미얀마 연방공화국은 135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5,500만명입니다. 이 중에 68%가 버마족이며 전체 국민의 90%가 불교도인 불교 성지 국가입니다. 남한의 6.7배나 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국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 62년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 후 일본 식민지를 거쳐 독립한 후 오랜 시간 군부통치(사회주의)체제였다가 2016년 아웅산 수치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양곤은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School of Theology(MRPST)에서 영어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MRPST는 2007년 12월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한국 기독교 교단 연합)으로 양곤시 밍글라돈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MRPST는 미얀마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미얀마 교육제도인 10학년 졸업시험(대학입학시험)을 합격한 재원들 중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버마, 몬, 야카인, 산족 등)을 주 타깃으로 삼아 선발하는 4년제 신학교입니다.

2019년 상반기 하나님께서 MRPST에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 초에 저의 멘토이며 사랑하는 언니인 도서출판 토기장이 조대표님이 미얀마 사역을 보러 오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대화 중에 한 교수님이 갑자기 “대표님 저희 학교에 영어원서 3,000권을 기증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던 일이라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얀마로 책 3천 권을 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도 잘 아는 터라 개인적으로 친한 언니지만 차마 부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제안에 언니도 아무 주저함 없이 흔쾌히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의 마음을 여신 것이었음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영어원서 8천 권이 준비되는 것은 저희 신학교의 목표 사업인 ‘장래 현지인 이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가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언니는 ‘미얀마 3천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미얀마 현지에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뜨겁게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호주,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자부담으로 보낸 책들이 속속히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맛보는 놀랍고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책이 들어오는 운송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세관이나 기타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하는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기존에 있던 책과 더불어 5천여 권이 필요했지만 애당초 목표치 보다 2천여권이 넘는 7,555권으로 감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오랫동안 동역 해 온 미국 틴테일 출판사에서 모은 1천여 권은 감사함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 6개월 안에 이 사역이 완결되기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나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그저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2020년부터는 윤페니의 전공인 패션 비즈니스를 살려 패션 아카데미에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사역에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윤페니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02

선교지로서의 한국

1. 한국 교회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인터서브 코리아의 사역 중 가장 큰 변화는 한국 내에서의 사역입니다. 아랍과 아시아로 파송하는 사역과 더불어, 국내에서 지역교회들이 선교적이 되도록 돕고, 국내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섬기는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Life As Mission School - LAMS

만나 교회

제3기 Life As Mission School



LAMS는 ‘가든지 보내든지’의 기능적이고 이분법적인 선교의 한계를 넘어서 ‘일상에서의 선교’를 추구하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인터서브의 협력 전통을 따라, 2018년부터 LAMS를 선교한국과 함께 연합하여 다양한 선교단체 리더들과 지역교회 리더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서브 자체적으로도 협력교회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이 LAMS를 준비하고 실험하였다면, 2019년은 LAMS가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선교한국과 함께 진행했던 LAMS가 4번 지역교회와 총회 신학교에서 있었고, 인터서브는 자체적으로 6개 교회와 연결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지역교회에서 1회, 신학교에서 1회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인터서브가 적은 역량으로 이런 많은 학교를 진행할 수 있음은 과거 파트너 리쿠르팅 중심으로 진행하던 In2Serve 학교를 중단하고 LAMS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미션얼 처치 컨설팅 Missional Church consulting

2019년 초부터,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의 요청으로 3년 간의 '선교적 교회 저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임을 기획하고, 당회와 목회자 모임에서 각각 4번씩의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셀 모임에 해당하는 어울림 예배에서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숲모임'이란 주제로 13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만나 교회(감리교)와 MMP-W 협약을 맺고 선교위원회와 분기별로 선교 이슈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디아스포라 사역'에 초점을 두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분기별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분당에 위치한 창조교회(장로 통합) 선교부와 '선교적 삶과 선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3번의 세미나를 통해 선교위원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LAMS의 진행과 선교적 교회 컨설팅은 인터서브의 교회 관계 패러다임이 바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가 파트너들을 리쿠르팅하고 재정을 후원해줄 대상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교의 주체로 보고, 교회가 미션얼해지도록, 즉 -미션'Mission'의 열이 살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내 선교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선교가 선교단체와 파트너 중심의 선교였다면, 이제는 현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변화는 뚜렷합니다. 인터서브는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를 돕는 선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교회

선교적 교회 저니 프로젝트



창조 교회

선교적 삶과 선교 위원회의 역할 세미나



대구 동신 교회

헌신자 비전 캠프



2. 한국 사회를 새롭게

1) 국내 다문화 인구 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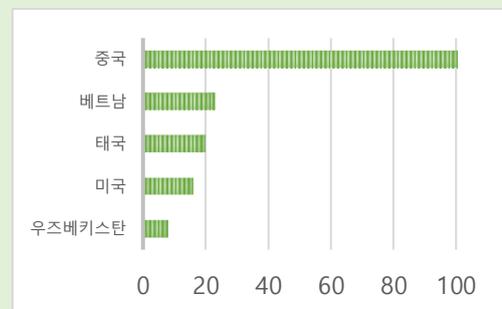
2019년 10월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인 248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다문화팀의 사역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아랍권 난민들의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난민에 대한 선교적 이슈가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많은 외국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정착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100만명을 넘는 중국국적자가 함께 살고 있고, 베트남(23만명), 태국(20만)인들도 미국인(16만)들보다 많이 한국에 살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인도 8만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 4천명이며, 결혼 이주민도 16만 5천명으로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중 베트남 결혼 여성 이주민만 4만명이 넘는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4,000명을 훌쩍 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추이 (단위: 만명)



국가별 체류 외국인 (단위: 만명)



자료출처: 법무부

2) 인터서브 다문화 사역의 전개

인터서브 사역 대상인 아시아와 아랍권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기에 인터서브 코리아는 국제 인터서브와의 의논 뒤에 2015년 국내를 선교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내 다문화 사역은 지난 2년 동안 아주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세 군데의 쉼터와 작은 도서관이 잘 자리나고 있고 미션파트너스와 연합해서 진행하는 “우리 친구 무슬림”^{Friendship First} 교육이 서울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각 4회, 2회 진행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돕는 사역이 충청도 옥천, 전라도 순천, 제주도에서 각각 시작되었습니다. N국에서 귀화한 난민 여성 사역도 지난 3년 동안 성장한 후, 이제는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공간을 마련하여 이주민/난민들에게 생활공동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하고 작은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난민 가정을 돕기도 합니다. 또한 이주 여성들의 생활자립을 위해 직업훈련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인터서브는 국내 다문화 사역을 진행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문화 사역은 타민족들을 교회나 종교기관에 부르는 방식이 위주입니다만, 우리의 접근은 이들의 총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 동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터서브가 지난 167년간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도 이 방식이 발견하며 우리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다문화 사역은 이주민 또는 난민들을 구제하거나 교회도 데려오는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과 친구와 가족으로 만나며 상호 배우고 함께 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서브코리아는 이런 관점을 크리스천들과 교회들과 공유함으로 우리가 함께 '삶으로서의 선교 Life As Mission'을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자요 예수님인 타민족 사람들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3) 자두 나무 모임

타문화권 선교 경험을 한 파트너들이 국내 다문화사역에 정착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 사역, MCC 등의 전문 상담 기관이나 M Bridge 같은 선교 멘토링 기관 등 선교 인프라를 돕는 국내 사역자들의 숫자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자두나무>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필드팀인 -Country Team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프렌즈들도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킹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선교적 허브 Mission Hub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쉬고 연결하는 교류와 우정의 장입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자두나무^{plum tree}와 같이, 자두나무 모임은 다양한 모습으로 국내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 함께 세움으로 우리 안에 온 이방인들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대영, 서현정 파트너 이야기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겨울이 조금 춥게 느껴지지만, 많은 분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잘 정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을 사용해 나가실지 기대하며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현정은 지난 9월 시작한 간호행정 석사과정의 첫번째 학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쉽지 않은 여정이긴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대영은 지난 11월말 열흘간 레바논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2월에 레바논을 떠난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최근 레바논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민뿐 아니라 그곳의 난민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세가 안정되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양 중인 사역은 현지 단체의 많은 노력 속에 점점 현지화에 가속이 붙은 것 같습니다. 현지 단체인 H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른 기부 단체의 지원을 받아 클리닉에 치과 및 안과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난민들을 위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서로가 적응해 나가는 시간은 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과정이 상처가 아닌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영은 10월 1일부터 예수병원에서 국제진료소 소장과 외과 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늘 사역 중에 함께 동역해 준 예수병원은 저희들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에 다시 돌아온 듯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수술과 환자 진료에 적응해 나가면서 국제진료소를 통한 외국인 진료 등의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몽골에서 간암이 재발한 환자가 연결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몽골의 아가페 병원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유학생들과 외국인 진료를 통해 낯선 한국 땅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양한 선교지에서 의료 연수를 위해 예수병원을 찾는 젊은 의료인들을 대영이 잘 도와 선교지에 장기적으로 좋은 선교 자원들이 준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병원에는 많은 다음 세대 선교 자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우리가 가진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들을 적절하게 가이드 해주고, 예수병원이 좋은 선교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다시 자기 문화에 돌아와 정착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몇 배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 한국에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대영, 서현정 파트너는 2005년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의료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들과 난민들을 섬겨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국에서 새로운 선교적 삶을 시작한 이대영, 서현정 파트너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03

공동체의 성장

1. 프렌즈들의 성장, 파트너들의 참여

인터서브 공동체는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파트너들뿐 아니라,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프렌즈가 함께 합니다. 2019년에도 모든 이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인터서브 프렌즈” 회지 뿐 아니라 매달 “프렌즈” 웹진이 발간되어 파트너와 프렌즈의 스토리를 나누었고, 매달 SNAP(Serving Nations with A Prayer) 기도문을 만들어 SNS를 통해서 전달함으로 현장소식과 기도제목이 공유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과 5월에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제목이, 10월에는 힌두인을 위한 기도제목이 전달되어 200여 명의 프렌즈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2019년 상반기에 그동안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후원자, 이사, 관심자들의 DB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총 1,224명의 개인과, 151개의 단체의 데이터가 정리되었으며, 현재 1,375명의 프렌즈들이 인터서브와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프렌즈 가운데 본부를 정기후원하는 금액이 10% 가량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렌즈들을 발굴하고 한국교회에서 선교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미션앤라이브^{Mission & Live}가 2019년에도 4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선교, 일의 즐거움, 통일 등의 다양한 주제로 서울,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현장을 생중계함으로 시간적, 거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배경의 이사들과 전문위원들도 2019년 동안 각각 2명과 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참여하는 이사들과 전문위원들에게 인터서브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치는 워크숍이 2019년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총 2회 진행되었습니다.

파트너들이 인터서브코리아의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도 늘어났습니다. 2019년 7월에 파트너들과 정책회의로 모였고, 파트너들의 재정 안정을 위한 기금이 함께 의논되었습니다. 또, 2020년 7월에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 기념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에도 파트너들

과 프렌즈들과 본부 스텝들이 TFT를 구성하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파트너 전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어 권역별 대표들을 선발했고, 이 중 두사람은 중앙이사회에 임명되어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프렌즈 스토리



김령 -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령입니다. 크리에이션케어는 몇 년 전부터 선교한국 이대행 선교사님께 말씀만 듣다가 올해 선교한국 브레인스토밍에서 처음 조שמ 선교사님을 뵈었고 두 분께서 이끌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해 왔던 것도 아닌데 올 1월 1일부터 지난 17년 간 하던 영어학원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30년 간 해오신 유기농에 합류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다니 사실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 어릴 적 꿈은 타문화권 선교사여서 20대 때는 간호사 면허도 따고 영국에서 신학 공부도 조금 했지만 진정한 동기를 필터링하며 콜링에 자신이 없어 그간 지역과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 서종면입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때부터 기장 소속으로 서울에서 유기농을 일찍 접했고 마침내 오빠와 제가 대학원과 대학 생활을 마치 마치고도 전에 아버지 고향인 이곳으로 귀향해서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유기농을 시작하셨습니다. 90년대에는 주로 다양한 채소류 위주로 재배해 교회 여신도회를 통해 공급하며 생명운동을 했고 한 십여 년 전부터는 딸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저도 이 생명운동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간호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다 농사를 짓게 되어 스스로의 일상조차 낯선 제가 더 낯선 인터서브에서 크리에이션 케어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잘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다만 인터서브를 향해 이대행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만을 아닐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LAMS에서 도대체 창조세계 보존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어찌하면 거기가 인도하심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터서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실 풍성한 교제와 도움과 격려를 통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부족한 인사의 글을 마칩니다.

2. 총체적 멤버케어 Wholistic member care

멤버케어^{member care}는 선교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으로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서브코리아의 일입니다. 파트너들이 전인적으로 균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가며, 자신을 돌보고 인터서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여 섬기는 것이 인터서브코리아 멤버케어의 방향입니다. 2019년 동안 2019년 동안 세 명의 파트너와 프렌즈, 이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파트너케어, MK케어, 부모님케어, 공동체 영역에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190명이 되는 파트너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케어사역은 과중하지만 전략과 원칙과 실천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1) 파트너들의 멤버케어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를 파악하는 일은 멤버케어의 시작입니다. 2019년에도 조샘 대표는 펜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동남아시아에 일하는 파트너들을, 송기태 부대표는 중앙아시아 지역 컨퍼런스에, 김기학 부대표는 터키 지역을, 서눔바 부대표는 파키스탄 지역을 방문해서 대화하고 디브리핑하며 현장의 필요들을 파악했습니다. 각 나라의 필드팀 리더들과 소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들과 가족들을 돕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는 파트너들과 자녀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병원 연결은 올해도 계속되었습니다.

고국을 방문하는 파트너들과 가족을 위한 기초 디브리핑과 심리 디브리핑이 총 38회 진행되었습니다. 파트너들은 이를 통해서 지난 경험을 평가하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계획함으로 사역에 있어 바른 균형을 갖게되고 전체 공동체의 큰 그림 속에서 서로 이해와 소통, 서로돌봄의 지원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55명의 파트너들이 안양샘병원, 부산 세계로병원, 이랜드클리닉, 판교 사랑의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64명이 안식관을 사용하였고, 7 유닛이 아시안미션에서 운영하는 “쉽더기프트”에 2박 3일 동안 침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 3가정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회복하는 MCN 일일 캠프를 사용했습니다. 또, 5유닛에게 교회와 개인동역자들의 정기적인 재정 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파트너들의 행정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 헬프 데스크(helpme.isk@gmail.com)와 파트너 전용 페이지(www.interserve.kr/partneronly)를 만들었습니다. 파트너들이 많이 요청하는 각종 증명서와 추천서, L2S 로그인 문제부터 파트너들의 종합건강검진예약과 안식관예약, 안식월 계획서, 타 안식관 정보 등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트너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2) 가족 돌보기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녀들 50 여명이 패밀리캠프, 신입파트너 오리엔테이션, 본부 방문 등에서 기초 디브리핑을 받았고, 이후 이중 13명이 부모와 함께 전문상담가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중고생 MK 들을 위한 그룹 디브리핑이 2회 진행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MK들을 위한 MK day 가 진행되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미취학, 초등MK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미리 교육 및 진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며, 중고생MK들을 위한 진학지도 상담 연결, 부부관계 소통을 위한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돌보고 방문하는 일이 2019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방문한 것이 15회, 가정방문이 7회, 전화심방이 55회 있었으며, 어버이날 행사가 예년처럼 전주에서 진행되어 30 명이 참석했습니다.

3) MK 호스텔 운영

송기태, 정승연 파트너가 운영하는 인터서브 호스텔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호스텔을 이용한 성인 MK는 6명이며 총 160일을, 파트너는 2명이 총 5일을 사용했습니다. 호스텔을 이용했던 MK들의 주요 목적은 취업 인턴십과 대학 입시 준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왔던 모든 MK들이 바라던 첫 직장 취업과 첫 대학 합격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호스텔에서 머문 파트너들과는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호스텔 사역에 후원자들을 더 보내주셔서 한 분의 이사님 가정이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하셨고 MK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장 김치와 먹거리, 놀이동산 이용권 등의 다양한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올 해에는 호스텔의 MK들과 이들을 돕고 싶어 하는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인터서브 공동체의 돌봄과 지원으로 우리의 파트너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자원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격려가 되길 기도합니다.



- 1) 리디아 컨퍼런스
- 2) 어버이케어 사역
- 3) MK 모임
- 4) 필드 파트너 방문

3. 스스로 돌보는 습관 Self-helping practice, 함께 섬기는 문화 Inter-serving community

2020년에도 멤버케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방향은 파트너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케어를 넘어서서, 파트너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자원 공유의 허브 Resource-sharing hub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건강한 멤버케어의 출발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가족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입파트너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 점검을 위한 프로세스인 HeadsUP과 사역계획서 PMP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이 고국에 들어오면 필요한 교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2020년은 각 필드의 CTL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파트너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HeadsUP을 하여 삶과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며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적 건강성을 돕기 위해서, 각 파트너들의 재정 상황과 기금 필요에 대한 서베이를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초에도 실시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파트너들에게 필요한 기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본부 전체와 함께 파트너들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정적 필요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정을 함께 나누는 문화입니다. 사실 지난 2019년 동안 많은 파트너들과 프렌즈들이 어려운 파트너들을 무명으로 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허입된 신입 파트너들을 위한 재정 플로잉은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멤버케어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은 재정적으로 함께 섬기는 문화가 더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2019년에 있었던 리더아컨퍼런스는 함께 돌봄의 좋은 예였습니다. 6월 17일-21일 4박 5일 동안 제주도 켄싱턴 리조트에서는 12명의 여성 싱글파트너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서브 내에는 총 21명의 싱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인터서브 역사는 싱글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싱글여성으로 인터서브소속 파트너로서 갖게 되는 안전한 공감대 안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모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섬김 기도방은 인터서브 공동체 전체와 파트너들의 긴급한 기도와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2주에 한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멤버케어 Inter-Serving Member Care는 스스로를 돌보는 멤버케어 Self-Helping Member Care와 더불어 인터서브가 지향하는 멤버케어의 한 축입니다. 2020년 역시 이런 문화와 관행이 자라나도록 공동체 전체를 도와려고 합니다.

04

미래를 위한 준비 - 장기 전략 사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함은 중요합니다. 미래의 선교는 종교적 세팅이 아닌 공적 광장에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서브는 지난 몇 년 동안 장기 전략 사역을 준비해서 실천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국내에서의 다문화 사역과 소수민족 여성 사역이 인큐베이션되었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의 디아스포라 사역 네트워크가 시작되어 이제 이 역시 자체적으로 움직이며 교포들의 동원과 미션얼 라이프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 텐트메이커 사역과 BAM 생태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NGO 사역을 돕기 위한 부분도 의논은 하고 있으나, 아직 역량 부족으로 본격적인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전략 사역 방향에 의해서 기독교 생태 운동인 크리에이션 케어 ^{Creation Care} 부분에서 김령 전문위원과 더불어 기본적인 팀을 구축하는 가운데 있으며 올 한 해 기초 모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다른 성과는 일본에 파송 될 파트너 1 유닛이 허입되고 훈련받는 점입니다. 이미 일본 나고야에서 7년간 BAM을 해온 이 가족은 일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입니다. 또, 국제 본부와 연결해서 일본 내에 기본 팀이 형성되고 있는데, 한국 사무실이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로 파송 될 예정인 한 싱글 자매의 인사 프로세스를 한국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파송교회와의 연결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1. 청년 선교 자원을 텐트메이커로 보내다!

텐트메이커 파트너로 헌신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을 시작한 이래 2019년에는 의미 있는 첫발을 뒀습니다. 2019년 10월, 27 세 청년 레이첼 자매를 1호 청년 텐트메이커 파트너로 파송하였고, 현재 A도시에서 현지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텐트메이커로의 현지 전문성 훈련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프로젝트는 청년 선교 헌신자 그룹과의 접촉을 위해서 대학생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IVF, CCC, 조이선교회 등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해외 선교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서 텐트메이커 선교단체로서 인터서브가 가진 전문성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선교헌신자들에게 부족한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북클럽 모임인 LAP Book Club(Life As People of God)은 2019년 2회 진행되었고, 2020년에도 상·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2020년에는 청년 그룹들이 장기 파트너로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기 엑스페디션과 중기 온트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프로젝트 담당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 BAM 에코시스템 구축



● BAM 코어팀



● BAM 파트너 방문

인터서브코리아는 해외 선교 단체들 중에서 비즈니스 선교(BAM)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5 유닛 정도가 BAM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새로운 문화 가운데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함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지원하고 격려할 BAM 생태계, BAM 에코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초기에 있습니다.

이 출발점으로서 전문위원과 이사로 구성된 BAM 커미티가 있으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 김용태, 전재홍, 위국명, 김은경 대표와 비제이파트너로 구성된 BAM 코어팀은 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서 BAM 정책과 다양한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M국과 C국을 BAM 커미티 구성원들과 방문하여 비즈니스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 친밀한 BAM 커뮤니티 형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8월과 12월에 인터서브 BAM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BAM 파트너와 프렌즈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모임으로 년 4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상반기에는 인터서브코리아가 추구하는 BAM의 방향을 정리하여 홍보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0년 인터서브코리아의 BAM 사역 팀에서는 하반기에 모든 BAM 파트너와 BAM 이사회, 프렌즈를 포함하여 인터서브 BAM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이 모이기에 수월한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BAM 재훈련을 포함하여 좀 더 친밀한 정보 공유와 사역 협력을 위하여 매년 또는 2년 1회 정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BAM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계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양질의 자료와 사례들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5

본부 운영

1. 본부 팀 운영

인터서브 코리아의 2019년 대표 포함 파트너 7명, 풀타임 스텝 4명, 파트타임 스텝 3명으로 총 14명이었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대표 포함 파트너 7명, 풀타임 스텝 4명, 파트타임 스텝 2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본부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초대해서 각 부서들이 팀으로 움직이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부팀의 업무분담은 왼쪽의 표와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목적에 근거한 팀워크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은 모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매니저와 파트너들이 동역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해서 팀을 만들고, 목적을 성찰하고 정리하고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김형철 매니저가 총무가 되며 업무 코디네이션에서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재정부의 경우, 우영미 매니저의 이직으로 업무에 미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부가 회계 보고 뿐 아니라, 펀드레이징과 책무 보고 시스템에서 장기적으로 진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재정팀의 기본 업무 능력이 먼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주 1회 재택근무, 지난 4년간 30%에 이르는 매니저 임금상승, 출퇴근 플렉스 타임, 360도 업무 평가, 분기별 목표 리뷰 등등의 안정으로 전체 사무실의 분위기는 아주 좋으며 이직 없이 2020년을 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재정 운영 하이라이트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고서인 “인터서브코리아 2019 재정보고서”에 자세히 정리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보고 합니다.

- 1) 증가하는 파트너 재정- 2018년을 기점으로 파트너들의 재정상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역시 2018년보다 3.9%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표 2에는 이런 변화의 추세가 잘 나타납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재정은 신입 파트너들에 대한 펀드레이징교육, 후원자 및 후원교회와의 적극적인 연결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당 월 수입액이 2백 33만원 정도로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펀드레이징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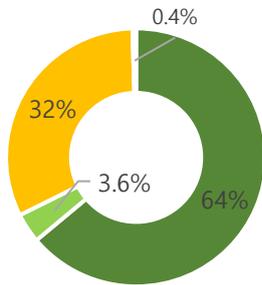


표 1. 2019년 파트너 재정후원 현황

총 재정후원금액

4,146,576,279 원

| | |
|----------|-----------------|
| ● 생활비 | 2,649,727,900 원 |
| ● 교육비 | 153,965,088 원 |
| ● 지정 구역비 | 1,324,274,003 원 |
| ● 기타 구역비 | 18,609,288 원 |

파트너 Unit당 월 후원액 연도별 추이 (단위 원)

총 Unit

103 units (가정:80units, 싱글: 23units)

Unit 당(가정) 월 후원금

2,330,827 원

Unit 당 연 후원금

27,969,920 원



표 2. 선교 Unit 당 재정후원금액

- 2) 본부 행정 총수입은 2019년 동안 총 461,975,147 (약 4억6천1백만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42%의 증가가 있었고, 전년 대비로도 6.6%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1%의 증가를 이뤄낸 셈입니다. 특별히 프렌즈들의 정기 후원이 9.7%, 비정기후원 및 기타수익이 14.1%가량 증가하여 재정적 수익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후원자들의 증가와 관계성 강화의 결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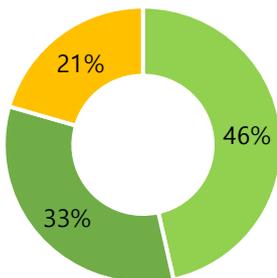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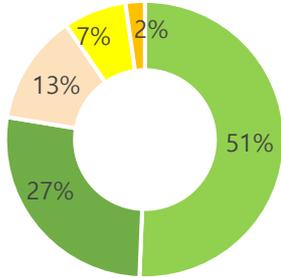
표 3. 2019년 인터서브 본부 수입

총 재정후원금액

461,975,147 원

| | |
|-----------------|---------------|
| ● 파트너 본부후원 | 214,654,096 원 |
| ● 프렌즈 정기후원 | 152,527,808 원 |
| ● 비정기후원 및 기타 수익 | 94,793,243 원 |

3) 본부 행정의 지출은 총 444,718,109원 (약 4억4천4백만원)으로 수입 대비17,257,038원 (약 천7백만원)의 이연금이 발생했습니다. 2018 년말에 유보한 이연손실액 -3,537,261원 (약 3백5십만원)이 있었기에 2020년 1월 본부 행정의 순 이연금은 13,719,777원입니다.



총 재정후원금액

444,718,109 원

| | |
|-------------|---------------|
| 인건비 | 225,138,323 원 |
| 부서 | 119,965,044 원 |
| 사무실 운영비 | 57,137,039 원 |
| 리더십팀 | 32,506,032 원 |
| 전략프로젝트 및 기타 | 9,971,671 원 |

표 4. 2019년 인더서브 본부 지출

4)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로서 총 지출의 50.6%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한국 내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본부 역시 스텝들 급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본부재정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동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5에는 지난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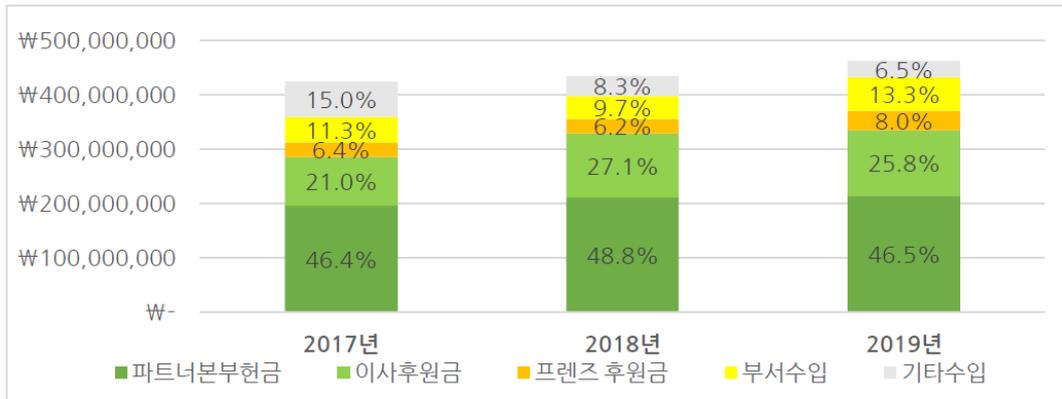


표 4. 2017-2019 본부 행정 수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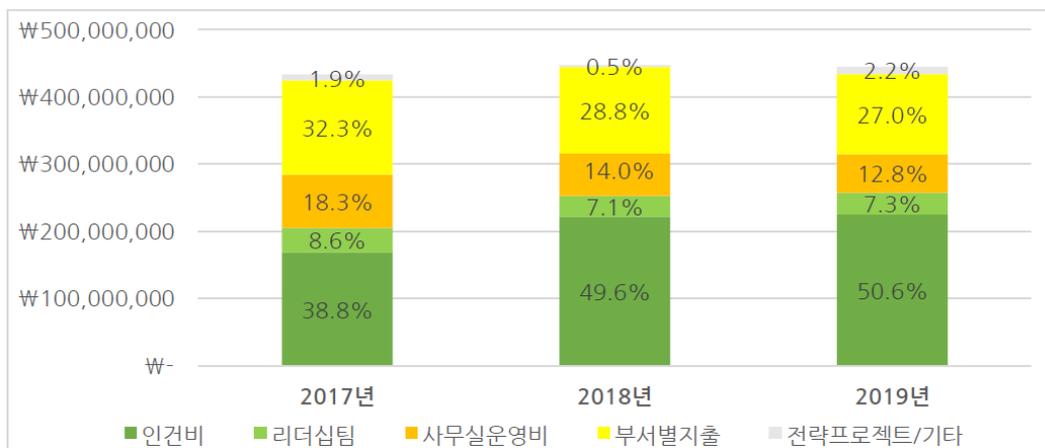


표 5. 2017-2019 본부 행정 지출 구성

- 5) 2019년을 결산해보면, 파트너들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의 후원은 증가하였지만 사역후원금에서 감소하며 전체 후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2.9%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부 재정의 경우 기대하였던 이사들의 정기후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부 사업과 프렌즈들의 후원 증가는 고무적이었습니다.
- 6) 2019년 말, 인터서브의 총자산은 1,927,237,124 원 (약 19억2천7백만원)이며, 본부 사무실과 두개의 안식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기금 자산이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 년도 인터서브코리아의 3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 11월 부터 모으기 시작한 기금과 다른 목적성 기금들 역시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은 2019 년 월별 평균으로 약 2 억 8 천 만원이었고 한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 7) 마지막으로 재정팀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재정팀에는 계속된 팀교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감이 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오미연, 노은희 매니저가 각각 본부재정과 파트너 재정을 담당하여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개선이라면, 일단 전체 재정을 정리하는 보고 형식과 프로세스가 나아지며 분류 상의 구조적 오류를 잡고 안정적인 보고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재정보고서” 파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기금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부 홈페이지에서 관심있는 후원자들이 파트너나 본부 후원을 클릭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후원신청 시스템을 개발한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정부는 회계업무와 보고 시스템에 집중되어 펀드레이징 자체를 할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팀을 스스로 확장하고 프로세스를 정리함으로 개선해야할 점입니다.

06

올 한 해의 평가, 내년도의 연례 목표

1. 올 한 해의 평가

이 보고서의 시작에 인터서브코리아 본부가 하는 업무를 다섯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다섯가지 업무 각각에 대해서 자평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 파송: A.** 숫자적 증가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또 담당팀 능력 면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2. **선교지로서의 한국 섬기기: A-**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협력 네트워크 면에서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단, 교회관계 팀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국내 파트너 모임인 자두나무의 모임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동체 성장: A.** 지난 해 많은 멤버케어 업무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멤버케어 팀이 확장되고 운영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단, 멤버케어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퍼실테이터의 역할로 가야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서 프렌즈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전체 공동체 기도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은 성과입니다.
4. **장기 전략 사역: A-** 다텐사역과 BAM 팀 인프라 구축에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팀이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처음으로 다텐 파송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또, NGO 사역에 관한 프로세스 구축이 시작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일본 및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된 점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다만, 다텐 사역의 파송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5. **본부 팀 운영: A-** 본부팀의 역량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본부의 재정 적자는 다 처리되었고 천삼백만원 이상의 잉여금도 남았습니다. 또한 프랜즈 정기후원이 늘은 점도 고무적입니다. 정기 후원 비율을 늘려야 되는 점과 어려운 파트너들을 위한 펀드레이징은 여전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2. 국제 우선순위 2019-2022 International Priorities

인터서브 국제 공동체는 4년에 한번씩 전체 리더들이 모여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찰하고 변경합니다. 또한 4년 동안 전체 인터서브 가족들이 추구해나갈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주일 간의 토론과 기도를 통해서 결정한 국제 우선순위 세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이 세가지 우선순위는 반영해야 할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IP 1. 제자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Enabling for making disciples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함께 제자로 자라날 뿐 아니라, 파트너들이 제자 훈련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한다.

-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파트너들이 총체적 사역 가운데 제자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공동체적 선교학 community missiology 과 교회와 동역하는 정신이 partnership with the church 우리의 사역 방법을 형성해가도록 계속 학습한다.
-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역 Creation Care의 성경적 명령에 더 깊이 헌신한다.

IP 2. 포용적 공동체성에서 더 성장한다 Deepening our inclusive community

우리는 인터서브 공동체가 서로 돕고 책무를 감당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노력을 멤버케어와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dependence on God과 함께 계속 해나갈 것이다.

- 현지 신자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인터서브 공동체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게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간다.
- 우리 안의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포용함으로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의 여정을 계속한다.
- 인터서브 전체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리더십과 영향력 면에서 번성할 수 있는 문화를 일군다.

IP 3. 미래를 위한 조직을 구축한다 Building our organization for the future

우리는 리더십, 운영, 행정 등에서 조직 역량, 특별히 현지 컨트리 팀 country team과 지역 차원 regional level에서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개혁해 나갈 것이다.

- •공동체 안팎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한다.
- •미래의 조직 모델을 탐색하고 실험한다.
- •각 팀과 전체 공동체에 새로운 재정 모델을 개발한다.

3. 2020년 한 해 어떤 목표로?

지난 한 해를 돌아봄과 국제 장기 우선순위를 참고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연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연례 목표들은 1년 뒤에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물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 **공동체성에서 성장한다**

2020년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의 성공적 기념행사와 함께, 인터서브의 파트너들과 프렌즈들이 함께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인터서브의 공동체성에서 성장한다.

- ✓ 3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인터서브의 파트너들과 프렌즈들이 참석하여 인터서브의 목적, 가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 ✓ 인터서브코리아를 후원하고 돕는 프렌즈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10% 이상 증가한다.
- ✓ 인터서브코리아의 지배구조에 대한 TFT의 가동을 통해서 새로운 법인으로 등록할 준비를 끝낸다.

● **인터서빙 재정 문화**

파트너들과 본부의 재정적 후원 기반을 확장하고, 동시에 파트너들과 프렌즈들이 자신들을 재정적으로 돌아보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본다.

- ✓ 파트너들이 스스로 펀드레이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워크샵을 통한 훈련과 연결을 통해서 전체 파트너들의 재정 후원이 5%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본부 및 파트너 기금정기 재정 후원자들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도록 한다.
- ✓ 파트너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기금을 개발하고 정기후원자들을 확보한다. 연 2,000 만원을 목표로 한다.
- ✓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기금에 파트너들의 재정적 공헌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논의 확정하고 기금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자 훈련에서의 성장**

파트너들과 프렌즈들이 제자로 커나갈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서도록 돕는 훈련 및 재훈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확장한다.

- ✓ 신입 파트너 훈련 프로세스와 커리큘럼을 국제본부와의 협력하여 2.0 통합버전을 만든다. 특히 허입 전, 허입후 배치 전까지 훈련하며, 인터서브코리아와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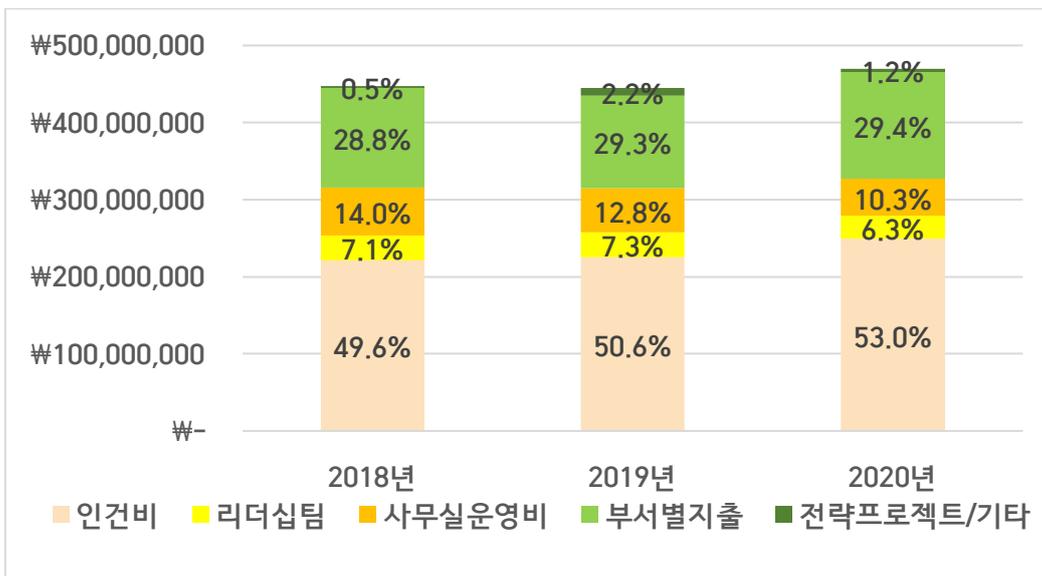
- ✓ 기존 파트너들의 재훈련 프로세스와 커리큘럼을 국제 본부와 협력하여 구축한다. 통합 기획안 1.0을 완성하고 2020 하반기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 프렌즈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통합 프로세스와 커리큘럼 1.0 버전을 기획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는 기초안을 완성한다.
- ✓ 폐낭의 다문화/ 영어 훈련 센터 1.0을 구축하고 실시한다. 첫번째 팀이 이 커리큘럼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1년간 시행함을 통해서 이후 2.0의 기반을 만든다.

2020 년 본부 행정 예산

단위 : 원

| 구분 | 세부항목 | 2020 년 예산 | 예산대비 구성비율 | 19 년 결산대비 증감율 | 2019 년 결산 |
|----|------------|--------------------|---------------|---------------------|--------------------|
| 수입 | 파트너본부헌금 | 230,000,000 | 48.7% | 7.1% | 214,654,096 |
| | 이사후원금 | 131,252,002 | 27.8% | 10.2% | 119,122,500 |
| | 프렌즈 후원금 | 40,528,587 | 8.6% | 10.0% | 36,844,170 |
| | 부서수입 | 39,660,000 | 8.4% | -35.4% | 61,409,110 |
| | 기타수입 | 30,500,000 | 6.5% | 1.9% | 29,945,271 |
| | 수입계 | 471,940,589 | 100.0% | 2.2% | 461,975,147 |
| 지출 | 인건비 | 249,400,000 | 53.0% | 10.8% | 225,138,323 |
| | 리더십팀 | 29,500,000 | 6.3% | -9.2% | 32,506,032 |
| | 운영비 | 48,500,000 | 10.3% | -15.1% | 57,137,039 |
| | 부서별지출 | 137,940,589 | 29.3% | 15.0% | 119,965,044 |
| | 전략프로젝트/기타 | 5,600,000 | 1.2% | -43.8% | 9,971,671 |
| | 수입계 | 470,940,589 | 100.0% | 5.9% | 444,718,109 |

2018-2020년 본부 지출 구성 변화



2020년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같이 보내드리는 재정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편성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20년 예산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하여 10%가량을 더 늘리게 됩니다. 큰 이유는 인건비 자체의 상승입니다. 2020년 4월에 시급을 9,630원으로 상승시킴으로써 7%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3년동안 계속 임금 상승을 가파르게 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역시 계속 오름으로 인해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인터서브 코리아는 12.1%정도의 급여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부 파트너 생활 보조금 역시 작년 대비 28% 상승하였습니다. 전체 본부파트너의 생활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일하는 파트너 숫자가 1명이 더 늘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지급받던 파트너에게 평균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평균화를 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트너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용 지출이 높은 스텝 한사람이 줄었기에, 전체 인건비의 변화에는 소량 정도의 상승이 있습니다.

